

영광과 고난
(마가복음 9:1-13)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 **변화산에서의 영광**

■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셨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난 일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눅 9:28-29). 예수님은 의도를 갖고 열두 제자 중 그나마 믿음이 가장 좋은 세 제자만 데리고 함께 기도하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 이후의 영광도 볼 수 있습니다.

■ **변형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십자가의 고난 후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아말로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영광과 권세, 위엄, 능력을 갖고 이 땅을 심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 **예수님에 대한 증거**

■ **모세와 엘리야:**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면, 엘리야는 예언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죄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질어준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임을 알려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 그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눅 9:31).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공로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좌우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는 하늘의 영광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곳에 계속 있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은혜받은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조금만 와도 아무 고난이 없는 영적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거하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실제로는 더 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변화산을 내려가셨습니다.

■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목격한 것을 발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영광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고난 없는 영광만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값 지불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원리입니다.

■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 만약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 메시아가 고난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셔야 하는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예수님께 여쭙았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고난받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이 고난받았듯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려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야 하듯 영광과 고난은 함께합니다(눅 14:28).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의 인생을
人生이 바뀐다

화평당 최영옥 집사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인생 간증
기쁨의교회는 예배 때에 예수님으로 변화된 간증을 발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벌써 우리교회가 30년이 되었네요. 저도 기쁨의교회에 온 지가 만으로 30년이 되었습니다. 30주년 기념예배가 발표되었을 때, 이 곳에서 보낸 30년의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귀한 곳에 있었을까요? 제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아 들 주연이가 태어난지 2개월 만에 희귀병으로 판명되어 10번정도 수술후 입퇴원을 반복했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 그리고 살더라도 견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 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지요.

희망이 없어서 날마다 울었던 거 기억하시죠? 꿈에서조차 우울했던 그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선교단체 목사 언니를 통해서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1996년 7월 비가 억수로 퍼붓는 날이었는데 몇십년 만의 폭우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었던 그날, 목사언니는 아이가 셋이었는데 한명은 말기고 한명은 안고 한명은 업고 그 폭우를 뚫고 버스를 타고 왔고, 저도 폭우를 뚫고 아이를 안고 버스를 타고 왔었죠. 목사님께서 그날 물에 빠진 생쥐같은 우리들을 반겨주셨던 모습이 지금도 선하게 떠오릅니다.

주연이가 목사님의 기도로 나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비를 뚫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지만, 저의 바램과 다르게 목사님은 오히려 주연이가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죠. 왜냐하면 아이의 영혼 이전에 아이의 문제로 오랜 고통가운데 있었던 저를 고쳐주심이 더 우선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기쁨의교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기도모임에 은혜로 참여하게 되었었죠. 그때 주연이는 뇌혈관 기형이었고 머리에 물이 많이 차서 뇌압이 높은 상태라 집에서는 잠을 못자고 밤새 울었었는데 너무나 우울했고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아들만큼 같은 그 곳으로 인도할 방지 못했다면,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연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오면 주연이는 고래고래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단점을 주셔서 한번도 깨지 않고 잘 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 병원에서는 견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했던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그 후에 많이 늦긴 했지만 32개월에 걷게 되었고 40개월 쯤 말할수도 있게 되었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께 사대질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주연이가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IMF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사대질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 다 모르고서 하나님은 안계시다고 하면서 한시간 동안 울면서 불평 불만 원망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때가 금요일이 기도회였는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고 정신을 차려보니 교회였는데 그때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성령님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러나 돌덩이처럼 딱딱한 나의 마음에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시간이 넘는 원망 불평의 울부짖는 소리에도 화내지 않으시고 잠잠히 들어주셨습니다. 온유하고 잔잔하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시간 동안 화개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니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그때 주셨던 말씀으로 버틸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가정불화로 늘 불안해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나를 이 가정에서 첫 열매로 불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친정엄마와 외할머니도 화양리 개척때부터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드리는 것은 엄마의 장례예배를 통해서 친정아버지와 오빠가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늘 교회가자고 하면 적성에 안맞는다. 너네 나 천국가라, 나는 지옥간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엄마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아빠가 하는 말은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니 듣지 마시고, 아빠가 재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죠. 아빠가 너무나 강박해서 늘 마음이 낙심이 되었는데, 그런 아빠가 지금은 엄마가 보시던 성경책을 하루에 2-3시간씩 읽으시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 보고계시죠? 저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가족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연합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모습이고 연합하고 죄투성이인 사람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제가 앞으로 얼마동안 지낼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영혼을 울음데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성도의 죽음이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 기쁨의 교회 뜻대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담임목사
정 의 호

기쁨의교회 방송 설교 안내 - CTS TV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생명의 말씀

1) 케이블TV: 용인(기남방송 222번), 광주(C&M 700번)
2) IPTV: Sky Life 183번, KT olleh TV 236번, Btv 551번, U+ 180번

기쁨의교회 라디오 설교 안내 - 서울국동방송 : 매주 금요일 오전 11:45 ~ 11:55 / 빛을 따라서

국동 방송 서울,경기: 106.9 MHz

기쁨의교회 라디오 설교 안내 - 영동국동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1:30 / 오늘의 양식

국동 방송 강원 영동: 90.1 MHz

▶ 기쁨의 교회 사역전력



▶ 기쁨의 교회 특징 10가지

1.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2.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3. 찬양이 살아 있는 교회
4. 전도와 간증이 있는 교회
5. 섬김의 삶을 사는 교회
6. 교제가 풍성한 교회
7.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8.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교회
9.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10. 제자를 세우는 교회

▶ 기쁨의 교회 오시는 길



▶ 대중교통 안내

[지 하 철 / 버스]

▶ 신논현역 7번 출구 또는 강남역 5번 출구 → 1241번 버스 → 동부센트레빌,동일하이빌차 하차

▶ 구성역(수인분당선 GTX)3번출구 → 31, 33, 34-2, 670번 버스 → 동부센트레빌,동일하이빌차 하차

현금 온라인 계좌 안내

● 주일현금 : SC제일은행	572-20-230777	예금주 : 기쁨의교회
● 십 일 조 : KEB하나은행	630-006691-277	예금주 : 기쁨의교회
● 감사현금 : SC제일은행	572-20-308622	예금주 : 기쁨의교회
● 건축현금 : 국 민 은 행	402601-04-012600	예금주 : 기쁨의교회
● 선교현금 : SC제일은행	572-20-179152	예금주 : 기쁨의교회
● 카라건축 : SC제일은행	572-20-305118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 카라일반 : SC제일은행	572-20-305129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 카라장학 : SC제일은행	572-20-321620	예금주 : 카라파운데이션

모바일현금 QR코드



« 기쁨이 쏟아지는 새시대 새교회 기쁨의교회 »

www.joyfulchurch.org

창립 30주년

2026년 교회 표어

하나가 되게 하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LET US BE ONE
JOHN 17:22

담임목사 **정 의 호**
제2026-28호 통권 6953호
7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기쁨의교회
JOYFUL CHURCH

교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96 Tel. 031-713-0691 Fax. 031-713-0692
MTC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119 Tel. 031-711-0191

